

# 서울대학교병원 약물이상반응 모니터링체계 구축

서울대학교병원 약물이상반응 소위원회

서울대학교병원

## Construction of adverse drug reaction monitoring system in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Adverse Drug Reaction Monitoring Subcommittee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서울대학교병원 약물이상반응소위원회는 2000년 12월 29일 1차 준비모임 이후 2001년 1월 30일 약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구성되었다.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사용되는 의약품에 대한 이상반응 자료수집과 인과성을 평가하며, 그 결과를 약사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보고하고, 원내 의료진들에게 약물이상반응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나아가서는 약물이상반응의 조기 발견과 예방에 공헌할 수 있는 약물감시체계의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보고대상이 되는 약물이상반응은 사망 혹은 생명을 위협할 수 있거나, 입원 혹은 입원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기형아를 유발할 수 있는 중대한 약물이상반응과 약물 정보지에 알려져 있지 않은 예상치 못한 약물이상반응을 그 대상으로 한다. 또, 실무 수행을 위하여 임상 각 과와 임상약리학 전공의사, 약사, 간호사 등 20여명으로 실무팀을 구성하였고, 주 1회 임상시험센터 제1회의실에서 세미나를 개최하여 약물이상반응 관련 정보의 공유와 보고된 증례에 대한 토의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방대한 임상정보의 효율적인 수집과 분석, 저장을 위해서는 별도 전산시스템이 필요하여 약물이상반응모니터링 전용서버를 설치하고 서울대병원의 병원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모니터링이 의뢰된 환자의 투약정보 등의 필요한 임상정보를 자동으로 다운받아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2001년 5월에 임상의학 연구소 전산실에 구축하였다.

지금까지의 성과를 살펴보면 소아과에서 3건, 신경외과 한 건의 증례보고가 있었고, 지난 8월 cerivastatin의 시장으로부터 철수 결정 이후 즉각적인 사태 파악과 이에 따른 신속한 처방제한 결정 및 본원 환자들에서의 이상반응 발생여부 파악 등의 성과를 들 수 있다.

현재 각 과별로 소위원회 위원들이 컨퍼런스 시간을 이용하여 홍보를 하고 있으나, 아직도 임상 각 과 주치의들에게 충분히 홍보가 안되었고, 실제 모니터링을 의뢰할 만한 동기부여도 부족한 현실이다. 이 후 임상 각 과의 교수 및 전공의들에 대한 홍보와, 실제 진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용한 약물이상반응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약물이상반응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